

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
AAT 인문사회계열 모의고사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

※ 본 시험의 답안은 대체로 완성형 단답식, (완성형) 서술식으로 작성된다. 대개의 경우 답안은 제시문에서 용이하게 파악되는 관계로 문항 [4]의 경우를 제외하고, 특별히 기본 점수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. 따라서 각 문항이 채점 결과는 0~만점까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. 채점자가 문항의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, 제시된 모범답안과 비교하여 수험생의 답안을 재량껏 평가한다. 즉 작성된 개별 수험생의 답안이 문항의 의도에 이탈하는 정도에 따라 감점이 이루어진다.

[1] 출제의도: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전자매체의 효용을 묻는 문제.

1. 답안 (10점)

전자 민주주의에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정치(투표) 참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. (44자)

(기타 가능한 답안)

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정치(투표)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한다.

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한다.

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투표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[2] 출제의도: 개별 구체적인 사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상위 관념을 파악하게 하는 문항. 즉 미국 사회에 내재해 있는 문화적 가치관을 파악한다.

2. 답안 (10점)

육체적 힘보다는 지적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문화 (29자)

※ 많은 학생들이 정답으로 제시된 미국의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원리적 진술보다 다음과 같은 표면적 현상의 진술에 머물고 있다. 적절한 수준에서 4~6점 정도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
① 백인은 지적인 면에서 흑인은 신체적인 면에서 탁월하다. (5~6)

② 백인은 지적으로 흑인보다 우월하다. (4~5)

[3] 출제의도: 등장인물의 행위와 성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 변화를 읽어낸다. 본문에서 관심을 두는 바는 '나'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이 억압적인 인물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과정, 즉 권력에 굴복해가는 과정을 그 결정적인 계기에서 포착하는 것이다.

3-1. 답안 (㉠, ㉡ 각 9점, 총 18점)

㉠ 갑작스러운 눈물, 눈물, 흐느낌 등등 (17자)

㉡ 저항을 포기한 영혼이 내는 슬픔의 정조 등등 (21자)

※ ㉠과 ㉡의 범주적 차별이 혼동되는 답안 작성이 자주 발견된다. 그러나 그 혼동이 아주 틀

렸다고 보기 어렵기에 다소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 예컨대

㉠ 슬픔의 정조 (5~6점 정도 부여 가능)

3-2. 답안 (각 3점, 총 12점)

㉠감독관 ㉡선생님 ㉢저항(대항 등) ㉣복종(굴복, 좌절 등)

[4] 이 문항은 대의파악과 일정한 수준의 표현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이 두어진다.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을 작성하되, 제시된 분량의 반을 상회하도록 작성하면 최소 15~20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.

4. 답안 (30점)

㉠ 서구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다고 전제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일반화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다른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인류에게 중요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. 라타크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되며, 다른 문화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찰하고 자신들의 문화에 담긴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. (234자)

㉡ 서구인들은 ('구동존이'의 표현처럼) 같은 것, 즉, 인류 공동의 가치의 추구를 향해 나아가지만,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다고 전제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일반화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나 민족의 차이점을 인정하여야 한다. 라다크 젊은이들은 ('화이부동'의 성어처럼) 다른 사람, 다른 문화와 어울리되, 자신들의 중심과 원칙, 즉, 자신들의 문화에 담긴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.

[5] 출제의도: 고전적인 다윈적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, 각 비판론의 주요한 논거를 파악하게 하는 문제.

5. 답안 (각 9점, 총 18점)

㉠ 유전자의 우연한 변이가 연속적인 화석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(40자 이내)

(기타 가능한 답안)

화석증거를 볼 때, 완전한 형태의 새로운 종이 일시에 출현했다.

유전자의 점진적인 변이(화)가 연속적인 화석증거로 파악되지 않는다.

㉡ DNA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어도, 생물이 처한 환경의 영향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유전될 수 있다 (60자 이내)

[6] 출제의도: 과학의 문화적 상관성, 과학적 탐구행위와 그 결과가 인간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상관성이 높다는 철학적 입론을 전제한 문제. 그러면서도 고전적 과학관, 즉 과학적 탐구의 절대적 객관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긴장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정신적 상황을 묻고 있다. 그

리학여 6-1과 6-2의 발문에 따라 적절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6-1. 답안 (10점)

- ① 과학이 생활세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형성되었다는 것. (34자)
- ② 과학의 이론체계가 인간의 삶에서 생겨난 것이다.

6-2. 답안 (10점)

과학은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이다. (22자)

[7] 출제의도: 헌법이 규정하는 '양심', 및 '양심의 자유'에 대한 2 가지 차이나는 해석방식을 제시한 것으로, 각각의 입장에서 양심,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. 제시한 모범답안의 취지에서 적절한 평가의 가감이 가능함.

(각 8점, 총 32점)

7. (가)에서 '양심'은 ㉠윤리적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선택하는 인간의 천부적 심성을 뜻하고, (나)에서 '양심'은 ㉡윤리적 선악 판단뿐만 아니라 세계관, 주의, 신조와 연관된 정신작용을 뜻한다. (30자, 35자 이내) 따라서 (나)의 '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자의 양심'은 (가)에 따르면 ㉢ 양심의 (자유가 적용되는)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, ㉣ 외부로 표출되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심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한다. (20자, 25자 이내)

총점 150점